

시대적 각성과 전환의 시점

강 준 일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예측불가능”의 불확정적 혼란으로 단순히 계층 간의 갈등을 지나서 사회의식이 붕괴 되고 있는 중 이다. 정확히 이 혼란이 어디로부터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시작 되었는가, 그 누구도 따져보고 해결 혹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의식의 총체적 해체라고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최근 들어 갑자기 부각된 두 계층이 화두로 떠 오르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불투명한 신세대”로 이들은 마치 “무저항주의”를 연상케 하듯 무기력 하면서도 외곬으로 빠진 편집증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구태의연한 구세대”(속칭 구닥다리 꼰통의 구세대)로 오로지 목표 만을 향해 무작정 온 몸으로 부딪치며 싸워나간다. 이 호전적 구세대는 마치 무기력한 신세대와 상극의 위치를 점하려는 듯이 오로지 “경쟁과 승리”를 끝없이 되뇌고 있다.

이 두 계층은 본질적으로 살아 온 시대가 달라 경험과 가치관에서 커다란 간격을 지닌다. 그렇다고 이들의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흥행기록으로 화제를 몰아 온 영화 “국제시장”과 드라마로 알려진 만화“미생”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다시말해서 두세대를 소재로 만든 영화와 드라마로 인해서 두 계층의 세대적 대립이 세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미 기성세대로 자리잡고 있는 “국제시장”의 세대에 대해서 새삼 설명이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이 계층은 매우 일관성 있게 오로지 한 방향으로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살았지만, 다음에는 “잘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잘살기 위해서”... 이 꾸준하고도 확고한 집념은 여전히 불변의 목표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로 이어진다.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의미는 좋게 말하면 “행복을 위해서” 요구되는 경제적 성취, 나쁘게 말하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뜻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돈이 모든 가치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이다.

한편 “미생”세대는 “국제시장” 세대의 희생물로 해석된다. 이들 대부분은 주장도 저항도 없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험경쟁에 이겨야 하고, 그러려면 오로지 공부만 해야 한다는 부모님들의 강압. 결과로 휴식도, 친구도, 취미생활도, 여가도 없이 격리된 프로그램 속에 외롭게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 공동체 의식도 협동생활의 기쁨도 알 수 없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건실한 정서를 위한 문화체험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미생(未生)”이다. 그 완생(完生)의 열쇠를 “국제시장세대”인 부모가 쥐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두 세대 간에 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성세대대가 지닌 엄청난 경험과 무작정 군림하려는 자세와 맞서 싸우기에 미생세대들은 경험도 주장도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생 세대가 당하고 있는 일방적 사육화는 좀처럼 종식되기 어렵다.

역사는 “양극성의 주기”를 통해 순환한다는 학설은 Spengler의 이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양극성이 단순히 정치사상의 대립에서 세대 간의 대립으로 전환해가는 양상을 보여 준다. 기존의 세대가 당면했던 사회와 현시대 젊은이들이 당면한 현실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부정 할 사람은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오로지 기존의 가치관 만 주장한다면 갈등의 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성세대는 굶주림을 겪었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를 창조했다. 독재에 항거하고 군부의 폭거와 싸워 민주화를 쟁취했고, 건설과 산업을 부흥시키고 경제발전을 이루어 세계사회에 도달하는 경제사회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비하면 현시대의 젊은이들 꿈과 희망은 얼마나 불투명하고 또 미약하한가? 대다수의 젊은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꼭 같은 도시의 아파트라는 제한된 공간에 갇혀 살았다. 굶주리기는커녕 끝없는 과식과 비만에 시달리고, 넘쳐나는 컴퓨터와 게임, 핸드폰 등등의 정보 혹은 가상세계에 둘러싸여 시달리며 몸살을 앓고 살아왔다. 그 사이사이에 학교 시험에, 입시에 실패하면 낙오자가 된다는 두려움과 부모들의 그칠 줄 모르는 위협에 시달리며 마치 미래를 상실한 죄인처럼 성장했다.

이런 결과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가정하여, 그 책임이 기존의 세대에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미생세대는 자신의 현실을 방관하거나 미래를 포기하려는 것일까? 또 이것이 진실이라면 기존의 세대는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관을 고집하며 이들을 몰아부칠 것인가?

사실 국제시장 세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로 나아갔을 뿐이다. 다만 이들이 흘렸던 점은 높은 이상과 철학이라기보다는 난관을 돌파하는 투지와 용기에 있다. 이에 비하면 신세대는 가치관을 통한 올바른 판단을 요하는 바 복잡한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이런 능력을 길러줄 책임은 바로 그들의 부모와 사회에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미생들 자신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면한 두 계층 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 전체의 각성을 요하는 일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 만큼 다함께 문제 원인을 찾고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적 시점과 각성

역사철학자 토인비가 2차대전 종식 후 패전국 독일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 느꼈던 소감을 술회한 바 있다.

독일 국민 대다수가 진심으로 전쟁의 과오를 인정하며 참회하고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패전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일차대전이 끝났을 때에 독일 역시 패전의 정당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2차 대전의 촉발을 피할 수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상의 이야기는 역사의 시점에서 각성과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종전 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근대사에 관한 일본인 역사 인식은 세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자칫하면 이들은 또 다시 전근대적 전쟁을 일으켜서 파멸의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 인식과 역사적 각성은 미래를 결정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물론 각성 뒤에 새로운 전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각성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역사는 각성과 전환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는 점에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근대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무엇보다도 제3의 신분으로 불리우는 중산층과 지식계층이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뒤 이은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정작 프랑스는 왕정으로 복고하는 퇴행을 했으며, 오히려 이런 시련을 극복한 프러시아에게 치욕의 패전을 겪어야 했다. 이런 사례는 역사의 각성 만큼이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 같은 역사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시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대적 각성과 전환” 그리고 “도전과 응전”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현실의 화두가 되었다.

우리시대의 역사

누구나 그가 믿는 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에 따른 결과야말로 바로 자기 인생의 여정이며 귀결이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역사란 지극히 자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연 또는 운명을 믿고 이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게 인식하거나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의 역사를 서술한다. 개인의 역사 역시 각성과 전환을 통해 발전하거나 퇴행한다. 삶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로부터 빚어진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드려야 하고 이로부터 성취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거나 실패를 뉘우치며 상실의 아픔을 겪는다. 또 이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어느 시점엔가 일련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뒤 따르는 삶의 방식 뿐 아니라 가치관도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변화가 긍정 혹은 부정이든 이 모두 각성의 결과란 점에서는 같다.

역사의 시점도 이와 같다. 다르게 말해서 역사는 근본적으로 각성의 시점을 통해 서술되고 이로부터 전환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구명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역사적 전환의 시점이 없다면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구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역사는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거나 또는 구명이 필요 없는 평상적 일상의 연속에 불과하게 된다.

여하 간에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야만 한다. 역사가 서술되기 위해서 삼아야 하는 기준으로서 특정 가치관이 있어야 하고 수단으로서 특정 언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사의 서술은 지극히 문화적 이다. 예컨대, 그리스인들에게서 시간은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연대기적 역사기록을 찾기 어렵다. 반면에 이집트의 유물과 기록의 시점은 항상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사후세계와 현생이 긴밀하게 연결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역사와 신화는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신계(神界)와 인간세계는 엄격히 별개로 나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현시대에 이르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을 서구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일 역시 자칫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과거 우리 전통문화가 서양과 달랐듯이 우리의 역사 서술방식 또한 서양과 다르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우리 역사를 포함시키기까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는 과거 2천년의 왕권 중심의 국가를 수립하여 이를 지속해 왔다. 이렇게 우리는 근대국가에 봉건제를 거치지 않은 매우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또 단일 민족으로 만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녔다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지난 한 세기 짧은 기간에 급격한 근대화의 과정을 겪은 우리 사회의 시련은 매우 격렬하고 위험한 것 이였음을 깨닫게 한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가부장적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단일 종족에서 다종족 다문화 국가로, 왕권 중심에서 민서 급격한 서구화, 세계화, 자본주의 산업사회, 과학문명과 전자정보시대, 등등 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들을 한꺼번에 겪었어야 했다.

이런 변화의 와 중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한 현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껏 잘 해왔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인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많은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변화를 가져올 것에 대비해야 만 한다.

바로 상황에서 다른 사회, 다른 문화, 타의 가치관을 따르려는 시도 혹은 성급한 판단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른바 “모든 것을 얻었으나 자기를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경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역사와 철학을 새삼 떠올려야 할 때 이다. 우리문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미래의 세계를 조망하고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각성을 통한 전환

각성이란 깨달음 이며 영혼의 외침 이다.

깨달음이란 단순한 이해, 혹은 의문의 답, 원인에 대한 결과 혹은 결말, 등과는 다르다. 깨달음은 논리적 사고의 답처럼 이성적 현상도 아니며, 단순한 갈등, 의문에 대한 문답도 아니다. 역설적으로 깨달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알 수 없이 모호하고 막연한 의문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답을 말한다. 거기에는 한 치의 망서림 이나 의심 등을 곁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한 순간에 완벽히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칼 융은 “집단의식”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호킹스는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를 때 마다 새로운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역시 원전에서는 깨달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종교인들은 깨달음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신이 내려주시는 “은총”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선승들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명상 수도를 한다. 법화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던 수천의 신도가 한순간에 아라한(깨달은 자)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상은 깨달음, 각성의 참 뜻에 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다.

역사의식의 각성이란 공동체 집단의 의식이 함께 도달하는 깨달음을 뜻한다. 이 역시 한 순간에 오는 것으로 그 시기나 출처를 규명하기 어렵다. 알려진 바로는 공동체가 집단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감 의식이라는 것 뿐이다.

역사철학자들은 인간이 역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문명은 쇠퇴하고 멸망 한다. 이런 원리는 진화론과 상통하는 것으로, 경험을 통해 나아갈 길을 새롭게 수정하지 못하면 자멸에 이르는 것이 자연의 섭리

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한 방향의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주장하는 바 “도전과 응전”의 역사법칙이다. 즉 도전에 대한 응전의 포기가 몰락을 가져온다는 그의 설명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 이 모든 것이 “자기결정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다시말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내일을 꿈꾸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나아가자! ..너 미생세대여!!!

2015년 겨울음악캠프 주제강의